

6월 10일부터 카페 1회용컵에 보증금 300원

자원 재활용 촉진 법률 입법예고 연 25억개 적용...컵 반환시 돌려줘 내년부터 플라스틱 포함 물티슈 제한 PVC 포장재 2024년부터 전면 금지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업종 등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브랜드 매장이 대상이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회용컵에 음료 구매하면 추가 300원 보증금 내야...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베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위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환경부는 1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PVC 포장재 2024년부터 전면 금지...플라스틱 포함 물티슈도 더는 못써=다음으로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이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 폴리염화비닐이 아닌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대체됐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을 사용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등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등을

대체재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000t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반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차등화해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한다.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기존 1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2023년부터 멸균팩과 일반팩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송재식)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5일 본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실제 이행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보건 경영체계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경영 관계자 면담 ▲매뉴얼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2021년 무재해 환경본부 포상 10회 달성 등 안전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2021년 산업재해 감축 최우수 본부로 선정된 바 있다.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일터 조성 및 안전보건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남구청사 1층에 휴식·회의실 갖춘 문화공간 '북카페' 개소

광주 남구종합청사 1층에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회의 공간을 겸한 문화공간인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25일 개소한 북카페는 170㎡ 남짓 크기의 2만 30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신문 키오스크를 비롯해 편의시설로 탁자와 의자·소파 등을 곳곳에 설치했으며, 구경 직원 및 주민들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3곳도 마련했다.

<광주 남구 제공>



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받는다

나주 등 '에너지캐시백' 시범시행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은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나주시와 세종시, 충북 진천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 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시범사업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절감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혜택, 즉 구간별로 20만~30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 세대보다 평균 전기 사용 절감량이 많으면 해당 절감량에 대해 1kWh(킬로와트시)당 3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어도 연간 약 34GWh(기가와트시)의 전기가 절약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500㎡짜리 페트병 약 2억2000만개를 생산·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탄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한전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24~28일 신청·접수를 받고 2~5월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교육청-7개 생협 탄소중립 업무협약

전남교육청과 전남지역 7개 아이쿱(iCOOP) 생활협동조합이 최근 전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 시대에 학교가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 재탄생하며, 실천하는 건강한 생태시민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건강한 저탄소식생활, 공정무역, 사회적 경제활동 등 교육협력 ▲건강생활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에 공동노력을 취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전남교

육 정책실행, 전남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선자 여수YMCA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아이쿱(iCOOP) 생활협동조합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 공정무역활동, 사회적 경제 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건강한 생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교육에도 적극 참여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전남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 받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